어두운 '경제 터널'

박 승 덕 의
냉정과 열정사이

최근 만난 A은행 부행장은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우려했다. 관세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 지속과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서다. 은행 내부에선 '비상상황'에 대비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모두 지난해 순이익이 3조원을 넘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런데도 비상이란다. 모든 예산을 다시 점검하고,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나라 안팎에서 불거진 정치·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움츠러드는 내수침체가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전월보다 줄어들어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2020년 2월 이후 4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소매판매는 준내구재(-2.6%), 비내구재(-0.5%)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투자가 모두 감소해 전달보다 14.2%나 줄었다.

경기침체 징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두달새 20만명이나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왔던 1997년보다 적다.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정국 불안의 영향은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탄핵정국 지속과 내수 부진,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향후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탄핵정국 속에서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도 걱정이다. 극단의 대치가 지속되고, 정치이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나라 경제가 풍전등화인데 이전투구만 하고 있다.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구조개혁과 핵심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정부는 사실상 멈춤 상태다. 탄핵정국이 빨리 끝나야 하는 이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내년 경제성장률(1%대)을 전망하면서 "그게 현재 우리의 실력이다"라고 꼬집었다. 성장동력을 찾고 산업의 구조개혁(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성장 기조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간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은 채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에 1%대 성장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나라 안팎이 어지럽지만 그나마 금융이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은 위안거리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내공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가 평균 타율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금융이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이 비상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나라 안팎 상황이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우아한 백조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 밑에선 쉼 없이 발장구를 친다"면서 사상 최대 실적과 상생금융을 위해 주요 은행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 말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좋은 뉴스를 찾기 어렵다. 어두운 '경제 터널'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누굴 위한 자동차보험료 인하인가

기자 수첩
김 주 형
〈금융부〉

자동차보험료가 4년 연속 낮아진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월 중순 및 오는 4월 가입을 앞둔 계약자들은 낮아진 가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대형 손보사 5곳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업계 선두로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1%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화재도 같은 폭의 인하를 결정했고 DB손해보험은 0.8%의 차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2월엔 KB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0.9% 인하를 발표했고 현대해상은 0.6% 인하키로 했다.

이로써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 2022년 4월 1.2~1.4%, 2023년 2월 2.0~2.5%, 2024년 2월 2.1~3.0% 내렸다.

올해의 경우 앞서 3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데다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악화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보험료 인상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손보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적자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4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은 전년(79.8%) 대비 3.5%포인트(p) 오른 평균 83.3%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 83.2%, 현대해상 84.7%, KB손보 83.7%, DB손보 81.7% 등이다.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대형사의 경우 82%, 중소형사는 80% 이하를 적정 손해율로 간주한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약 7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도 되지 않는 보험료 인하는 차 한 대당 약 3500~7000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에 불과하다.

보험사도, 소비자도 체감할 수 없는 상생금융이라는 명목하에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명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가득하다. 누굴 위한 상생금융과 자동차보험료 인하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어느 누구도 해답을 내놓기 어려워 보인다. /gh471@

오늘의 운세

3월 14일 (음 2월 1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해보라. **48년생** 행동은 사고에 의해 지배당한다는데. **60년생** 가벼운 산책으로 건강을 보살펴라. **72년생** 하기 쉬운 일도 노력이 수반되어야. **84년생** 일취월장할 기회가 온다.

37년생 장황한 자기소개는 자괴감만 일어난다. **49년생** 내일 뛰지 않으려면 오늘 걸어야 한다. **61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버릇을. **73년생** 힘을 키워서 집안을 일으켜보려는 계획을. **85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38년생 투자인지 그냥 적선인지 잘 구분. **50년생** 의미 부여는 왜곡된 상황을 초래. **62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74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방황하지 말도록. **86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39년생 사돈댁에 불만이 있어도 양보를. **51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온다. **63년생**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75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해보자. **87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40년생 소통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52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좀 더 분발. **64년생** 주변에 인색하지 않도록. **76년생**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88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4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53년생** 힌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이니. **65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 **77년생** 정확한 의사 표현을. **89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연락이 오니 마음이 기쁘다.

42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 **54년생** 영업은 적극적으로 행동. **66년생**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으라는 소통이 아니다. **78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다. **90년생** 강아지를 키우려면 예방접종도 철저하게.

43년생 말을 해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55년생** 믿어 주는 사람이 있다. **67년생** 돈거래를 하기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79년생** 빨강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온다. **91년생** 밤을 이겨낸 자만이 찬란한 새벽을 볼 자격이 있다.

44년생 멀리 있다고 소홀히 대하면 원망을 듣는다. **56년생** 이직보다는 공부하도록. **68년생**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알 수도 없다. **80년생** 이리저리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살을 부른다. **92년생** 큰 둑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게 현실이니.

45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57년생** 논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해결. **69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현실에 직면. **81년생** 남에게 잘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은 어떤지. **93년생** 집안 대소사에 말로서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는.

46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58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70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진다. **82년생** 책 좀 읽으라 하시던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리운 날. **94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싸움 부추기지 말도록.

47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59년생**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려지지 않는다. **71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83년생** 버틸 수 있으니 희망이 있다. **95년생** 계속해서 일이 안 풀리면 삼재풀이를 해보도록.

김상회의 四季

장수의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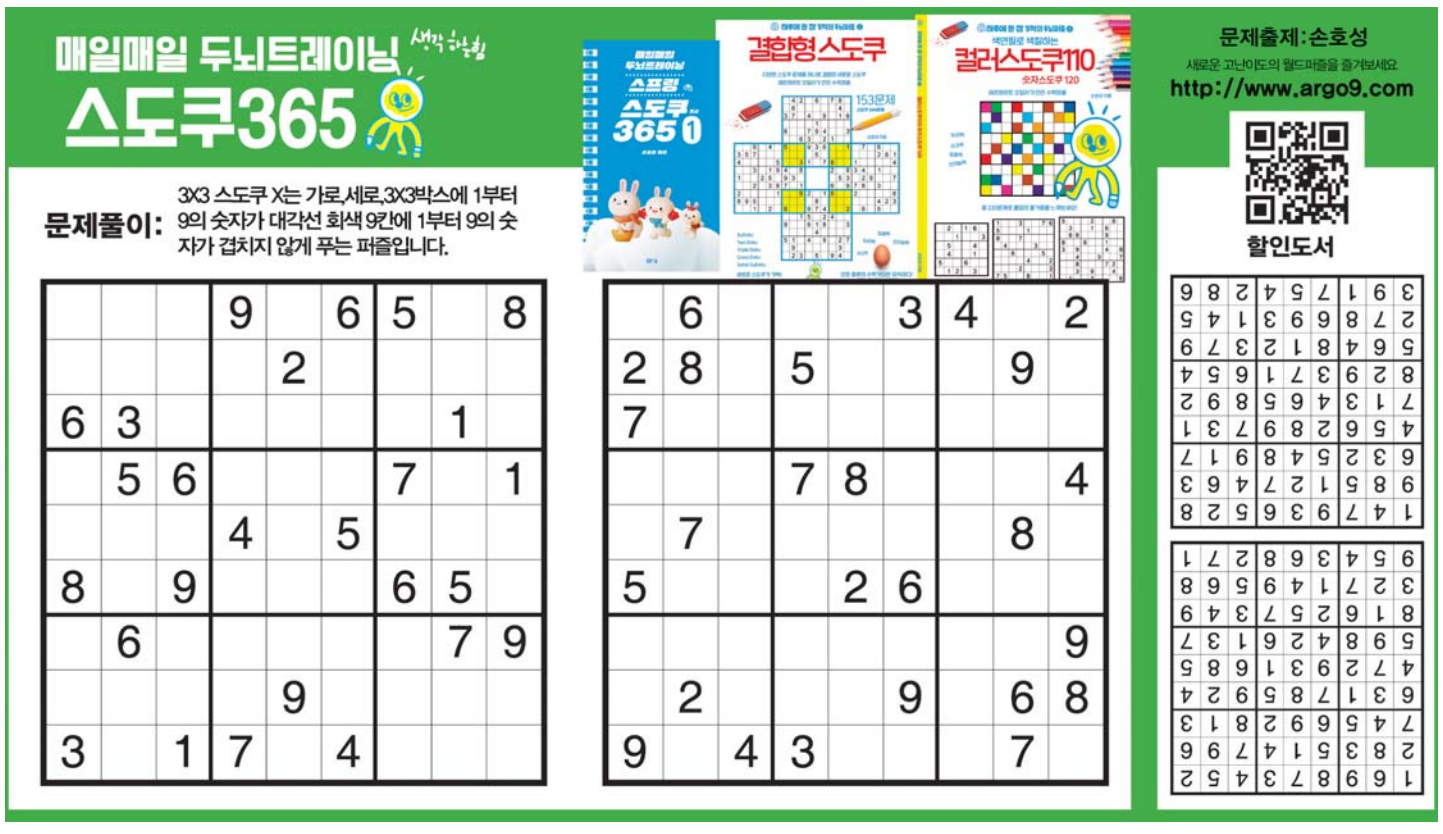
언젠가 외국의 유수한 신문에서 충분한 수면과 운동, 건강한 식단 섭취는 질병을 예방하고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인구조사국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에는 약 10만9000명의 100세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 약 6만5000명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가족 중 여러 명이 고령까지 살았다면 이미 유전자적 요소는 A학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영양 좋은 식습관과 양질의 수면은 건강한 신체 유지의 필수요건일 것이다.

더하여 스트레스 적은 긍정적 사고야말로 누가 보아도 바람직한 장수 유전자의 요인일 것이니 그렇게 새로운 주장도 아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의학자나 과학자들의 연구실험 결과가 뒷받침해 줄 뿐이다. 필자는 건강과 질병과 장수 등의 문제를 사주명리학적 관점에서 펴나갈 수밖에 없다. 필자는 오래전 서울대 통합대학원의 요청으로 오행으로 본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패널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통계학적 수치 등 학문적 제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사주 명조에 있어 특별한 질병에 걸리는 상관성을 역학적 견지에서 설명해 본 것이다.

물론 여러 변수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토성(土性)이 강하거나 약한 사람은 위와 소장 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고, 수(水) 기운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는 생식기나 신장 관련 질환에의 노출이 높다거나 하는 오행적 논리였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며 낙천적 사고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보약을 능가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백 세를 맞이한 어느 장수자의 인터뷰에서 "인생은 유리잔을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3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